

본당소식

공지사항

■ 오도구 성당 블로그 제작

오도구 성당 홍보를 위해 '서로 이웃'을 추가해 주세요

■ 먼훗날 우리는

6월 21일 미사 중에 송별 인사가 있습니다.

■ 여름방학 미사 안내

6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오도구 성당 미사는 없습니다

■ 오도구 캠프

일시	7월 10일(금)~7월 12일(일) / 2박 3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6월 7일)

봉헌금	680 위안
미사예물	200 위안

※ 봉헌금은 현금이나 봉헌봉투 안쪽의 QR 코드로 부탁드립니다

2026. 6. 14. 일
- 연중 제11주일 -

예수님께서
이들 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셨다.

글씨: 정영택(그라피)

124위 복자

복자 홍익만 안토니오

(? ~1802)



홍익만 안토니오는 양반의 서자로 태어나 양근에서 살다가 한양 송현으로 이주하였다. 순교자 홍교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서사촌 동생이요, 흥필주 빌립보와 이현 안토니오의 장인이다.

그는 1785년경 천주교 교리를 접한 뒤 교회 서적을 읽고 이승훈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고, 1796년에는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만나 교리를 배우며 성사를 받았다. 또한 신자 공동체를 만들고 도왔으며, 때때로 주 야고보 신부를 자신의 집에 영접하였는데, 당시 그의 집은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의 하부 조직이자 집회소였던 '육회(六會)'의 하나로 선정되어 있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그는 안산과 여주로 피신해 다니다가 스스로 체포되어 포도청과 형조에서 혹독한 문초와 형벌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교우들을 밀고하고 신앙을 버리라고 강요받았지만, 누구도 고발하지 않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그는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져 있으니 마음을 바꾸어 신앙을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마침내 사형을 선고받은 홍익만 안토니오는 1802년 1월 29일(음력 1801년 12월 26일) 서소문 밖(또는 새남터)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천주교 오도구 권보



오도구본당 QR 코드

발행 천주교 북경오도구 | 본 당 北京海淀区后八家 248 号神哲学院 | 주임신부 강주석 베드로
 편집 김민규 대건안드레아 | 홈페이지 cafe.daum.net/wudaokouch | 정년회장 권오기 베드로



연중 제 11 주일

⊕ 오늘의 전례

제 1 독시	제 2 독시	복음
탈출 19,2-6 ㄱ	로마 5,6-11	마태 9,36-10,8

【회답송】 시편 100(99),1-2,3,5(㉠ 3 ㄷ 참조)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복음 환호송】 마태 1,15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영상제송】 시편 27(26),4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 복음 12,37 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앞에서 그토록 많은 표징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로 전반부를 마무리한 다음, 13 장부터 17 장까지 유명한 “고별 담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서 잡히시기 전에 하신 긴 말씀이지요.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계시면서, 식구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 “우리 집안에 믿을 것은 너 밖에 없다”라고 하셨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손들이 앞으로 잘 살까 고민하시고 하신 말씀이시겠지요. 예수님은 세상에 남을 제자들을 위해 무엇을 바라셨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말씀들을 다시 읽어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제자들 각자가 흩어져서 뛰어난 사도가 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13 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예수님은,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13,14)라고 하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다투어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사랑으로 일치를 이룰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도 있고(13,21),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지만(13,38), 이러한 불안전함 속에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13,35). 이런 공동체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14 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어,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14,26)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그 공동체의 일치의 중심이 되십니다.

어느 한 사도가, 어느 한 인물이 그들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15 장에서 그 일치의 중심에는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하느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제자들은 가지로서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15,12). 그리고 16 장에서는 다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16,7). 지금은 예수님이 떠나가심을 슬퍼하지만, 한 장소에 눈에 보이게 머무시는 예수님의 현존이 사라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 성령께서 오시어 온 세상의 교회를 일치시키실 것입니다.

17 장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장차 믿게 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17,21). 매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봅니다. 어떤 책에서, 사람들은 전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전쟁은 다 설명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인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분열은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일치는 성령을 통해서만 설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원하신 대로, 교회가 일치를 통해서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며 일치를 추구합니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

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저서 「이사야서」 「이사야서 쉽게 읽기」 「예레미야서 쉽게 읽기」 「구약의 역사설화」 등.

「2026 의정부교구 사목교서」

「미사에서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이웃에게 선교하며 세상에 봉사하는 교회를 향하여」